

# DDA, 2007년 5월 농업협상 동향

주 헌 정\*

2007년 4월 30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DDA협상에 관하여 협상국들을 자극하기 위한 의장문서를 발표하였다. 문서는 크게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의 주요 3개 부문에 대하여 의장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펠코너 의장은 1차 문서에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추후 논의 결과 2차 문서가 5월말이나 6월 초에 발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리티 수정안을 협상 휴회 전인 7월말까지 합의할 것을 밝혔다.

## 1. 현황

지난 4월 30일 교착상태에 놓인 DDA협상의 농업협상그룹 펠코너 의장은 농업관세와 농업보조의 삭감에 대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는 DDA협상에서 다루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펠코너 의장의 의장문은 W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협상위치를 제고(提高)하기 위한 자극으로 의장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펠코너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관점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는 미국의 경우 자국의 농가보조를 이전에 제시하였던 것 보다 더 크게 삭감해야 한다고 하였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mailto:jhj1013@krei.re.kr) 02-3299-4262

## 2. 국내보조 분야

펠코너 의장은 무역왜곡보조의 효율적인 감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효율적인 감축이 어느 정도인지 어려운 사안이긴 하나 문서에서 그는 효율적인 감축률을 1구간의 경우 최소 31%, 2구간은 최소 53%, 3구간은 최소 70%까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국내보조의 전체 감축률

구간	구간경계(십억달러)	감축률
1	0-10 & 모든 개도국	31%-70%
2	10-60	53%-75%
3	>60	70%-80%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에 대해 펠코너는 미국이 OTDS 53% 감축으로 2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제안은 다른 국가들에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제 미국의 지급실적은 190억 달러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OTDS 허용 한도를 190억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20은 75% 감축하여 120억 달러로, EU는 7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의장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Amber Box를 60%까지 삭감해야하며,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무역을 왜곡하는 다른 두 가지 보조인 De-minimis(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적어도 50%를 삭감해야(현재 생산액의 5%)하며 Blue Box는 생산의 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AMS(감축대상 보조)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EU는 70%, 미국·일본은

60% 감축을 하며, 이에 미국은 70%에 더 가깝게 감축하도록 제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 감축률의 2/3정도로 부과하도록 한다.

### 3. 시장접근 분야

펠코너는 관세감축원칙의 구조는 G-20의 제안에 근거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도국의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3분의 2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선진국은 그들의 관세구간을 4구간으로 구분하고 최상위 구간 경계는 60%(EU 제안)~85%(미국 제안)로 설정하였다.

민감품목의 수와 관련하여 대세는 전체 세번의 1~5%이다. 미국, G-20, 케언즈그룹은 민감품목의 수를 전체 세번의 1%로 주장하고 있으나 G-10은 15%, EU는 8%를 요구하고 있다. 펠코너 의장은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은 일반감축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가 될 거라고 명시하였다.

특별품목을 지정함으로써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에 의해 관세감축으로부터 보호를 허용받고 있다. 그러나 펠코너 의장은 이러한 보호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DDA협상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사이에서 특별품목의 숫자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몇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였다. 즉, 민감품목의 수는 1~5%, 특별품목은 이보다 더 많이 5~8%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G-33은 모든 품목의 절반을 면제해주기를 요구하였다. 펠코너 의장은 모든 품목에 일정 정도, 약 10~20%의 관세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 수출경쟁 분야

수출경쟁에 대하여 팰코너 문서에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DDA협상은 농업수출보조가 끝나는 시기인 2013년도에 완료할 것이다. 현 협상단계에서는 2009년 1월 이전에 수출보조철폐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폐시한인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가 철폐되기 위해서는 이행기간 초반까지(2010년) 50%를 감축하고 나머지 기간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다.

식량원조는 원칙적으로 무상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상시는 현금원조로의 전환이 지지되며, 현물원조는 여러 규율로 제재를 받게 된다. 현금화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 5. 각국 반응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의 세 부문에서 국가별로 불균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G-33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의장문서가 선진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쳐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시장접근분야에서 선진국 민감 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시하고 국내보조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보조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문서는 개도국에게는 많은 요구를 하는데 특별 품목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입국 그룹인 G-10은 의장문서가 너무 제한적이고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케언스그룹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 문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불균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미국에 대한 팻코너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한 OTDS를 190억 달러에서 100억대로 감축시킨다는 것은 논쟁이 될 만하며, 이는 팻코너 의장이 개도국보다 미국의 상황을 더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 6. 향후 전망

팻코너 의장의 개정된 초안문은 5월말에서 6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그의 2차 의장문서(Challenges Paper)는 5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G-4과의 회담 뿐 아니라 다른 협상국에서 2차 발표문이 나오기 전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영향을 가하려는 여러 협상들 때문이다. 2차 발표문에는 1차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Green Box, 열대농산물, TRQ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다음의 모든 회원국과의 비공식 회의는 5월 30일에 열리며, 제네바 외에 파리와 브뤼셀 등에서 열린 G-4, G-6, G-10회의를 포함한 작은 그룹간의 토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Geneva Watch Vol. 7, Issue no.16.17 발췌정리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11. No.15,16.17 발췌정리